

전북 일부 지역 중학생의 기술·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

김숙배*·최선정·손희숙·차연수,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A study on middle schoolers' perception of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

Sook-Bae Kim, Seon-Jeong Choi, Hee-Sook Sohn, Youn-Soo Cha,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, Chonbuk National University, Jeonju, Korea

본 연구는 7차 교육 과정 기술·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지도를 성별, 학교소재지별, 학교형태별로 평가·분석하여 추후 식생활 단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7차 교육과정 식생활 단원을 이수한 전북 지역 중학교 1학년생들로 도심지역 (도심 A) 남녀공학 360명, 도심주변지역 (도심 B) 남녀공학 360명, 소도시 남학교 180명, 여학교 180명 등 총 10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질문지는 일반사항,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(식생활 단원의 목표 파악 정도,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,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,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), 식생활 단원 (청소년의 건강과 영양, 균형 있는 식사,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)에 대한 난이도, 필요도로 구성되었다.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인지도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목표 파악정도는 성별, 학교소재지별, 학교형태별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.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는 성별 (여> 남), 학교소재지별 (도심A, B> 소도시), 학교형태별 (남녀공학> 남, 여) 차이를 보였다.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는 학교 소재지별 (도심 A≥ 도심 B≥ 소도시), 학교 형태별 (남녀공학≥ 남≥ 여) 차이를 보였다.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는 학교 소재지별 (도심 A> 도심 B> 소도시), 학교 형태별 (남녀공학> 남, 여) 차이를 보였다. 둘째,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는 '청소년의 영양과 건강' 단원에서는 학교 소재지별 (도심 B≥ 도심 A≥ 소도시) 차이를 보였고, '균형 있는 식사' 단원에서는 성별, 학교 소재지별, 학교 형태별 차이가 없었으며, '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' 단원에서는 학교 소재지별 (도심 B> 도심 A, 소도시), 학교 형태별 (남녀공학≥ 여학교≥ 남학교) 차이를 보였다. 셋째,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는 '청소년의 영양과 건강' 단원에서는 성별 (남> 여), 학교소재지별 (도심A> 도심 B> 소도시)로, 학교형태별 (남녀공학> 남학교, 여학교)로 차이를 보였으며,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단원에서는 성별 (여> 남), 학교 소재지별 (도심 A, 도심 B> 소도시), 학교 형태별 (남녀공학> 남학교, 여학교) 차이를 보였다. 본 연구 결과, 기술·가정 교과 과정 중 식생활 단원 교육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 즉 올바른 식생활의 인식과 활용을 위하여 성별, 학교 소재지, 학교 형태가 고려된 실질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.